



보도 일시	2022. 7. 1.(금) 09:30	배포 일시	2022. 7. 1.(금) 09:30
-------	----------------------	-------	----------------------

담당 부서 <총괄>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2830)
		담당자	사무관 김영진 (kimsupa304@korea.kr)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1(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❶ 6월 수출입 동향과 주요특징(산업부, 제목만 공개)
- ❷ 주요 에너지·원자재 가격동향 및 전망(국금센터, 제목만 공개)
- ❸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제목만 공개)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업일수 축소, 화물연대 파업 등 영향으로
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나,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6월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어려운 대외여건 가운데서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난달보다 다소 확대되었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 회복흐름이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출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주 일요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출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6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세계 각국이 높은 물가상승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5월 5.4%에 이어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물가상황에 대응하여
물가·민생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조치가 시행됩니다.¹⁾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오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첫째 주부터
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²⁾
주 2회 이상 전국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물가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습니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집중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가격 안정을 비롯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와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 유류세 30→37% 인하, 휘발유 △57원/L, 경유 △38원/L, LPG(부탄) △12원/L

2) ①가격·유통(산업부), ②담합(공정위), ③세금탈루(국세청), ④유가보조금 부정수급(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

오늘 회의에서는 ‘6월 수출입 동향과 주요특징’,
‘주요 에너지·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 활성화,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출·물가 등 당면 현안 대응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파, 5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 등 선도경제를 향한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세 번째 안건으로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을 논의합니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IT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던 사이버 해킹의 범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경제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신규 인력공급 4만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6만명 등
총 10만명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 이어 관계부처 조율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7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안정 등 당면 현안 대응과 함께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발언 종료)